APT 단지 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 제안

The Planning Guidelines for Revitalizing 'Kyungrodang' in the Apartment Complexes

곽윤진* 권오정**
Kwak, Yun-Jin Kwon, Oh-Jung

Abstract

Korea's aging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every year. In addition, because of the increase in quantity of apartment complexes,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is also rising steadily. Consequently, caring about the elderly residents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apartment complexes. Currently the most common recreational facility for senior in the apartment complex is 'Kyungrodang'. However, 'Kyungrodang' has not been used as an active community area to elderly residents due to lack of leisure programs and other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ive direction to support leisure life and healthy living for senior residents and to make 'Kyungrodang' usable community space for the residents of all generations. In connection with this, this study also identified to find ways to revitalizing for 'Kyungrodang'.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ed the ideas than can improve the usably of 'Kyungrodang' not only to the elderly residents but also to all residents in terms of space planning and leisure programs.

Keywords : Kyungrodang, Apartment Complexes, Elderly Residents
주 요 어 : 경로당, 아파트 단지, 노인거주자

Ⅰ. 서론

2008년 7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에 이르렀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년기를 직업적 활동에서 벗어난 은퇴 이후의 시기로 본다면 노인이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은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30여년 정도를 노년기로 보내게 되므로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 노년기의 증대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의 양적증가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노인의 수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건강 등의 이유로 주거환경 내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낸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들이 접촉 및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노인을 위해 가장 보편화된 여가활동장소라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양적인 증가를 거듭해 왔다.*** 경로당이 일반적인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되는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경로당 이외에 적합한 여가활용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로당의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아파트 단지 거주노인 중 일부만이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경로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편법 사용하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건강, 교육수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노인의 욕구 역시 변화한 것에 반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부재, 부정적 이미지 등이 원인이 되었다. 경로당의 위치적 측면에서도 기타 부대복리시설과는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배치되어 다른 연령층과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아파트 단지 내 거주 노인의 증가와 노년기 여가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하는데 비해 가장 보편화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은 전통적인 경로당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로당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경로당의 건축적 측면과 사회 복지학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지 정리한 후, 아파트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고령 거주자의 여가문화, 건강생활 등을 지원하고 또한 연령 통합적 측면의 사용을 고려한 경로당의 공간 계획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로당의 이해

1) 경로당의 개념

경로당은 과거 지역사회 노인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소일거리를 하거나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마을의 사

* 준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 전국의 경로당 수는 1975년까지만 해도 3,872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1983년에는 8,946개소, 1992년에는 21,601개소,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57,930개소가 운영 중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었다. '노인정'이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미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임춘식, 2005).

2) 경로당 관련 법규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면적의 합계가 300㎡를 초과하는 때에는 설치면적을 300㎡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일조·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시설과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의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의 자로 명시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정의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 26조에서 경로당의 이용정원은 20명 이상(읍,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기준으로는 화장실, 거실 및 휴게실, 전기시설, 설비기준으로는 경로당의 거실 또는 휴게실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노인복지법 제 4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경로당의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노인회가 구성되어야만 구청 사회복지과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 요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경로당의 일정 면적이나 경로당 등록 자격 요건만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노인들의 신체조건이나 특성이 배려되지 않아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3) 경로당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건축적 측면

경로당과 관련된 건축분야의 주요한 연구로는 김부영(2001), 김정현(2007), 이종운(2000), 홍천기(2007) 등이 있었다. 건축 분야에서 경로당 관련 연구의 방법으로는 경로당의 활성화 혹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단지의 배치도, 평면도 분석과 현장 관찰 조사 등을 통하여 단지 내 위치나 경로당 시설의 개선과 같이 물리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분야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경로당은 시설 면에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거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역시 노인을 위한 공간은 경로당이 유일하고 커뮤니티 시설 내에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여가공간이지만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 거주공간으로서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노인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을 위해 경로당 공간 구성의 다양화 혹은 다른 커뮤니티 시설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 사회복지 측면

사회복지학 분야의 주요 선행 연구는 이용세(2008), 임춘식(2005), 서점옥(2005) 등이 있으며 경로당에서의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혹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및 정책의 분석과 경로당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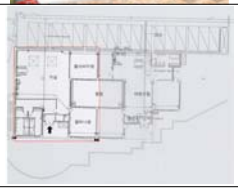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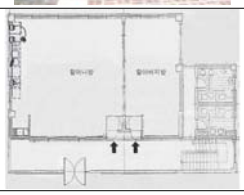
사회복지측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경로당의 문제점은 경로당 이용률이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으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경로당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재정상의 문제로 미비하여 경로당 이용노인의 경우 소모적인 여가를 보내게 되고, 비이용 노인들의 경우 더욱 더 경로당을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경로당 이용률은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능력과도 연관이 있는데 향후 고령 진입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더욱 더 높아지고 경제적 능력도 갖춘 고령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은 대다수가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도시지역은 경로당 공간 확보가 어려워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경로당의 경우 부대복리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지어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4곳의 경로당 이용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및 경로당 개요는 <표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와 체크리스트 문항을 검증하기 위해 2009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비조사 10부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2009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54명의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필요시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 된 설문지 중에서 부실 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5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및 경로당 개요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단지 개요	① 세대 수	644 세대	853 세대	1,656 세대	384 세대
	② 입주 시기	1999년 12월	2003년 5월	2004년 12월	2001.9
	③ 평형 구성	85, 122, 141, 156 , 163㎡	114,152,161,181,191,210㎡	76.6, 106.4, 139.8,164,198㎡	99.50, 134.20, 176.90, 220㎡
경로당 개요	① 단지 내 위치	단지 주입구	단지 외곽	단지 주입구	단지주입구
	② 경로당 면적	69㎡(법규상 89.4㎡)	134 ㎡ (법규 상 110.3㎡)	270 ㎡(법규 상 190.6㎡)	68 ㎡(법규 상 63.4㎡)
	③ 1인당 면적	4.6 ㎡	9.57㎡	13.5㎡	5.23㎡
	④ 형태	부속형(관리사무소건물내)	단독형	부속형(유치원 건물 내)	부속형(관리사무소건물내)
	⑤ 경로당 등록회원	21명	45 명	65 명	23 명
	⑥ 1일 평균 실이용회원수	15명	14 명	20 명	13 명
	⑦ 경로당 내 시설	거실,화장실,부엌,냉난방시설, 기타(운동시설,TV,정수기,김치냉장고)	화장실, 부엌, 냉난방시설, 기타(컴퓨터, 운동시설,TV,정수기,김치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거실,화장실,부엌,냉난방시설, 기타(컴퓨터,운동시설,TV, 정수기)	화장실,부엌,냉난방시설, 기타(컴퓨터,운동시설,TV,정수기)
	⑧ 경로당 외관				
	⑨ 경로당 내부도면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실측조사로써 경로당 물리적 환경의 안전·편리성(28문항). 쾌적성(9문항). 인지성(2문항)에 관한 체크리스트(총39문항)를 구성하여 연구자가 경로당 방문 시 직접 평가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설문 내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라 연구자가 1대1로 면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6문항), 개인성향(6문항), 만족도(3문항), 요구도(5문항), 이용실태(7문항), 주민공용공간과 공유 선호 여부(3문항)등으로 총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단순통계분석(빈도분석, 백분율, 평균)을 하였고, 교차분석과 χ^2검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 성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구성, 교육수준, 거주 평형, 거주 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5세~79세의 노인이 43.1%, 80세 이상노인이 56.9%로 연령이 높은 노인이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가족구성은 독거 혹은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 단독가구가 2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인+2세대, 노인+3세대 혹은 노인+친척·타인으로 구성된 노인 가족가구는 74.5%로 노인 단독가구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까지를 낮은 집단, 고졸 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는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74.5%). 거주평형은 20평대 이하를 소형, 30평대를 중형, 40평대 이상을 대형으로 설정한 결과, 소형(17.6%)보다 중·대형 평형 거주자가(각각 41.2%)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의 거주기간은 5년 이하 거주노인이 56.9%, 5년 초과 거주 노인이 43.1%로 나타났다.

개인성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동적 혹은 정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항으로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응답은 정적이면 1점, 동적은 2점으로 처리하였으며, 6개 항목 점수의 평균은 1.81점이 나타나 대체로 동적인 성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평균점인 1.81점을 기준으로 기준미만은 정적인 성향, 기준이상은 동적인 성향의 노인 그룹으로 정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64.7%가 동적인 성향으로 조사대상 경로당 이용 노인은 동적 성향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 대상 경로당의 물리적 특성

경로당의 물리적 특성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측 조사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출입구(8문항), 방(12문항), 화장실(9문항), 주방 및 식당(7문항), 계단(3문항)으로 각 공간의 인지성, 쾌적성, 안전·편리성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실측조사에서 각 실별 평균점수를 통해 잘된 계획요소와 불량계획요소를 나타낸 것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 2. 각 실별 양호 및 불량 계획요소

▷방	평균 (1.85)점
잘된 계획요소	방의 폐적성 (2점)
불량 계획요소	단차 (1점)
▷화장실	**평균 (1.61)점**
잘된 계획요소	세면대 높이 적절성, 세면대 손잡이 조작편리성, 창 혹은 기계환기장치 설치(2점)
불량 계획요소	세면대 옆 안전손잡이 미설치(1점)
▷계단	**평균 (1.50)점**
잘된 계획요소	미끄럼 방지 설치 (2점)
불량 계획요소	계단 양쪽 안전손잡이 미설치(1점)
▷출입구	**평균 (1.44)점**
잘된 계획요소	경사로 계획, 거칠지 않은 마감재 사용(2점)
불량 계획요소	계단 미끄럼방지 미설치, 현관문 안전고무 미설치, 현관의자, 손잡이 미설치(1점)
▷주방 및 식당	**평균 (1.39)점**
잘된 계획요소	식탁 및 의자 높이의 적절성(2점)
불량 계획요소	주방싱크대 조명 미설치 (1점)

*척도 - 1점 : 불만족/ 2점 : 보통/ 3점 : 만족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얻은 방은 경로당 이용자들이 할머니·할아버지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경로당 내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장소이다. 방의 물리적 계획요소들은 잘 되어 있었으나 미닫이문의 레일로 인한 단차가 있었다. 그 외에는 노인들의 생활습관상 실내 조명을 켜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구배치로 인해 창문 개폐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파를 밟고 올라가야해 위험요소가 있었다. 화장실 역시 계획요소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특정 단지의 경우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사례와 고장 난 변기로 인해 불쾌함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계단의 경우는 4개 단지 모두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한 층으로 된 단독건물이라 경로당 이용노인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다. 출입구는 평균 점수가 낮은 항목에 속하는데 대부분 20여명이 생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였고, 단차가 있었으며 출입구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지하기에 어렵게 되어있었다.

경로당 내 공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주방 및 식당'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시설로 뽑혀 두 조사결과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방'의 불만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는 동선이 고려되지 않거나 매우 협소하게 계획된 점, 노인의 신체사이즈가 배려되지 않아 높이가 너무 높고 손잡이가 잡기 불편하게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그림1참조).

①,② - A아파트 경로당 주방.
주방이 2개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만 사용하며, 공간이 매우 협소.

③,④ - B아파트 경로당 주방.
윗찬장이 너무 높고 협소함

⑤ - C아파트 경로당 주방.
상부손잡이가 없으며 조명이 없어 어두움

⑥,⑦,⑧ - D아파트 경로당 주방.
개수대가 분리되어 있어 동선이 복잡함

그림 1. 조사대상 경로당 주방 모습

3. 조사대상 경로당의 만족도 및 요구도

1) 조사대상자의 경로당 만족도 및 요구도

경로당 외부와 내부시설에 대한 경로당 이용노인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면적에 대한 만족은 낮은 편(2.31점)이었다. 조사대상 APT단지들이 지어진지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낙후된 시설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면접설문 결과 대다수의 노인이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이정도면 감사하다는 의견이었다. 남녀 방 구분 유무에 대하여서는 76.5%의 노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각 실을 독립·분리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필요에 따라 시각적·청각적으로 분리 가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경로당 내부에서 안전사고를 겪은 노인은 없었지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노인들이 47.1%였으며, 현재로서는 불필요하지만 향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 내부 시설 중 개선을 요하는 시설로는 부엌, 화장실, 방 혹은 거실의 구조가 상위 3개 시설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회원 중 여성이 많고, 이용노인들 대부분 점심식사를 경로당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부엌은 꼭 필요한 시설이나 동선이 맞지 않거나 매우 협소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 고장 나거나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못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방 혹은 거실의 구조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대개 할머니방과 할아버지 방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노래교실 같은 여가프로그램 시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경로당 만족도 및 요구도

항목			N(%)	평균*
만족도	외부 만족도	만족	28(54.9)	2.41
		보통	16(31.4)	
		불만	7(13.7)	
	내부 만족도	만족	34(66.7)	2.61
		보통	14(27.5)	
		불만	3(5.9)	
	면적 만족도	넓다	23(45.1)	2.31
		보통	21(41.2)	
		좁다	7(13.7)	
요구도	방 구분	예	39(76.5)	1.24
		아니오	12(23.5)	
	안전시설	필요	24(47.1)	2.39
		보통	23(45.1)	
		불필요	4(7.8)	
	개선시설	화장실	13(25.5)	-
		부엌	14(27.5)	
		냉난방시설	3(5.9)	

		방 혹은 거실의 구조	9(17.6)
		현관 및 출입구	3(5.9)
		바닥재	3(5.9)
		기타	6(11.8)

*3점 리커트 척도로, 숫자가 클수록 만족도 및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

2) 각 변인에 따른 만족도 및 요구도 차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당 조사대상자의 거주평형에 따른 경로당 내부시설 만족도를 살펴보면 작은 평형에 사는 경로당 이용자일수록 경로당 내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로당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경로당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로당 면적이 큰 집단과 경로당 내 1인당 면적이 큰 경우가 경로당의 면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로당 이용자들이 하루의 5~7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내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경우에 쾌적감을 느껴 만족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각 변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

변인			평균	Duncan	F/t값
내부 만족도	평형대	소형	**3.00**	b	3.900*
		중형	2.67	ab	
		대형	2.38	a	
면적 만족도	경로당 면적	소	1.88	a	18.382***
		중	2.43	b	
		대	**2.89**	c	
	경로당 1인당 면적	5㎡미만	2.19	a	16.824***
		5~10㎡이하	1.82	a	
		10㎡ 초과	**2.89**	b	

* *p< 0.5, ***p<0.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만 표를 구성

경로당 프로그램의 요구도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집단은 운동과 같이 동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으나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경우 건강관련 강좌나 물리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었다(표5참조). 따라서 연령대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표 5. 연령대에 따른 경로당 내 희망 프로그램

희망프로그램 / 변인		노래 교실	건강 관련	운동	이·미용	Total	χ^2
연령대	65~79세	5 (22.7)	8 (36.4)	9 (40.9)	0 (0.0)	22 (100.0)	16.736**
	80세이상	3 (10.3)	19 (65.5)	1 (3.4)	6 (20.7)	29 (100.0)	

* **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만 표를 구성

4. 경로당 이용실태

경로당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표6참조), 경로당 이용노인의 60.8%가 경로당 외에는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가 없었으며, 그 외에는 교회와 성당의 친교모임을 나가거나 아파트 단지 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66.7%의 노인이 과거 경로당을 이용해 본 적이 있었으며, 스스로 경로당에 나온 노인들이 많았다(60.8%). 노인들은 거의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72.5%), 하루 3~4시간을 이용하는 노인이 43.1%와 56.9%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아침 11시 경에 나와서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5~6시 사이에 집에 돌아간다고 응답하였다. 경로당에서 하는 활동으로는 화투가 가장 많았으며(47.1%), 대화(21.6%), TV・라디오(11.8%)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0.8%), 그 다음으로는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17.6%)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는 집에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노인도 11.8%가 있었다.

표 6. 경로당 이용실태

변인		N(%)
경로당 외 여가장소	없음	31(60.8)
	산책로	8(15.7)
	종교 친교모임	10(19.6)
	기타	2(3.9)
과거 경로당 이용경험	있다	34(66.7)
	없다	17(33.3)
경로당 출입계기	스스로	31(60.8)
	타인권유 (이웃·친구·관리사무소등)	20(39.2)
경로당 출석 빈도	거의 매일	37(72.5)
	일주일에 2~3번	14(27.5)
일일 경로당 이용시간	3~4시간	22(43.1)
	5~7시간	29(56.9)
경로당 내 활동	TV, 라디오	6(11.8)
	대화	11(21.6)
	화투	24(47.1)
	낮잠	4(7.8)
	기타	6(11.8)
경로당 이용이유	친구를 만나기위해	31(60.8)
	오락을 즐기기위해	9(17.6)
	여가프로그램 이용	4(7.8)
	집에 있을 공간 부족	6(11.8)
	기타	1(2.0)

5. 주민공용시설과 경로당의 공유 관련 특성

<표7>에서 나타난 것 같이 경로당과 주민공용시설과 공유여부에 대하여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인 경로당 이용노인의 대부분이 여가활동시설과 경로당을 공유해 본 경험이 없고,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공유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좋다는 응답이 39.2%로 향후 주민공용시설과 경로당이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로당 근처에 있기 원하는 시설로는 다목적실이 49.0%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조사 대상 경로당 중 3곳의 공간이 남녀방과 부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까운 위치에 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로 활용가능한 다목적실을 원하고 있었다.

경로당과 주민공용시설과 공유정도에 대해서는 할머니방과 할아버지 방으로 사용되는 휴식공간을 제외하고 공유되기를 37.3%의 노인이 원하고 있었다. 반면에 서로 다른 건물에 있기를 원하는 노인은 11.8%로, 대다수의 노인이 주민공용시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신 층분리 혹은 소음시설과는 분리하여 시・청각적으로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민공용시설과 경로당의 공유 관련 특성

변인		N(%)
주민공용시설과 공유여부	**같이 있으면 좋다**	**20(39.2)**
	생각해보지 않았다	**27(52.9)**
	같이 있으면 싫다	4(7.8)
경로당근처 희망시설	관리사무소	7(13.7)
	다목적실	**25(49.0)**
	타 주민공용시설 근처	7(13.7)
	경로당 별도로 있는 것이 좋다	6(11.8)
	상가	6(11.8)
경로당과 주민공용시설 공유정도	서로 다른 건물	6(11.8)
	함께 있되 층 분리	8(15.7)
	함께 있되 소음시설 분리	18(35.3)
	휴식공간 제외하고 공유	**19(37.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성향에 따른 주민공용시설과 경로당의 공유 여부를 차이검증 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빈도분포를 볼 때 여자가, 80대보다는 6~70대 노인(젊은 층)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는 노인 단독가구가, 중·대형 평형 거주자보다는 소형 평형 거주자가, 보다 동적인 성향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주민 공용시설과 경로당이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경로당과 주민공용시설의 공유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성별과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남자노인은 '함께 있되 층 분리 혹은 소음시설 분리'를 원하는 노인이 80%가 넘었으나 여자노인은 '휴식공간을 제외한 공간은 다른 연령층과 공유'하기를 선호하고 있었다(표8참조).

표 8. 각 변인에 따른 경로당과 주민공유시설의 공유정도 차이

변인 \ 경로당 이용이유		서로 다른 건물	함께 있되 층 분리	함께 있되 소음시설 분리	휴식 공간 제외하고 공유	Total	χ^2
성별	남	1 (7.7)	4 (30.8)	7 (53.8)	1 (7.7)	13 (100.0)	8.571*
	여	5 (13.2)	4 (10.5)	11 (28.9)	18 (47.4)	38 (100.0)	
교육 수준	낮은 집단	5 (13.2)	4 (10.5)	11 (28.9)	18 (47.4)	38 (100.0)	8.571*
	높은 집단	1 (7.7)	4 (30.8)	7 (53.8)	1 (7.7)	13 (100.0)	

* *p< 0.5.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만 표를 구성

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향후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주민공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층 분리 혹은 소음이 나는 시설과는 분리되기를 원하여 어느 정도 노인들만의 독립적인 공간 역시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로당은 주민공용시설 내에 노인을 위한 휴식공간과 함께 설치하되 타 커뮤니티 공간과는 시각, 청각적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2. 노인들은 타 연령층과 교류를 원하고 있으나 주민공용시설과의 공유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이었다. 이는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경험이나 교육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민공용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거나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경로당과 주민공용시설이 자연스레 공유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 계획 시 세대 간 교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경로당의 물리적 환경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부엌'이었다. 또한 건축 법규상 취사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부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로당 이용노인의 90% 이상이 점심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고, 하루의 5~7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내므로 부엌 공간은 필수적이며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어야한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엌'의 협소한 공간, 동선배치, 높이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노래교실과 같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여가프로그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의 물리적 환경은 남자노인의 이러한 특성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남자노인의 정적 성향을 반영한 여가프로그램이 없어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남자노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래교실과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여가프로그램 시 공간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경로당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로당 주변 주민공용시설의 다목적실과 연계하여 여가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다. 또한 향후 경로당에서 남자노인의 정적 특성을 반영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부영(2001) 공동주택단지 경로당의 이용실태 및 계획 방향 제안, 중앙대 석사 논문
2. 김정현(2007) 아파트 단지 내 고령 친화적 커뮤니티 시설 만족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3. 서점옥(2005)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4. 이용세(2008) 경로당 운영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5. 이종운(2000)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의 건축 계획적 분석, 충북대 석사논문
6. 임춘식(2005) 서울특별시 경로당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복지재단
7. 홍천기(2007) 고령친화적인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